

	구분	신입	지원부문	영업(부산)			
	[인적사항]						
	성명	한글	박종호	주민등록번호	19870210 - *****		
		영문	Park jongho	나이	28	성별	남
		한자	朴鐘浩	E-Mail	lycos386@naver.com		
	거주지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11-7 304호					
전화번호	028205382	휴대폰	01090437370	희망연봉/직위	3,400만원 이하 / 사원		

[학력사항]

구분	입학연월	졸업연월	학교명	전공/학과	부전공	구분	졸업구분	소재지	성적/만점
고등학교	2002-03	2005-02	효명고등학교	기계과		3년제	졸업	경기도 평택시	
대학교	2006-03	2013-02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4년제	졸업	서울특별시/본교	3.4
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석사	2013-03	2015-02	중앙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2년제	졸업	서울특별시/본교	4.4
	세부전공			논문제목	스포츠문화공간으로서의 장충체육관에 관한 연구				
대학원/박사								/	
	세부전공			논문제목					

[병역사항]

구분	기필	군별	육군	계급	이병	복무기간	2007-08-27 ~ 2009-10-09	면제사유	
----	----	----	----	----	----	------	-------------------------	------	--

[건강사항]

신장	177	체중	87	혈액형	A	시력	0.5 / 0.8	신체장애	
----	-----	----	----	-----	---	----	-----------	------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현직장명	직위	동거
부(父)	박기식	62			○
모(母)	장동순	60			○

부모생존여부	부(○), 모(○)	종교		결혼기념일	____-__-__
형제자매	외동	취미	축구, 스키	보훈대상여부	

외국어능력	외국어명	회화	독해	TEST명	종합점수	등급	취득연도

수상경력	수상내용	수상처	수상연도	비고
	MR.Korea 전국대회	대한보디빌딩협회	2004	1위
	85회 전국체전	대한체육회	2004	2위
	제1회 동아시아보디빌딩선수권대회	동아시아보디빌딩연맹	2005	1위
	전국춘계대학보디빌딩대회	대한보디빌딩협회	2006	1위

자격/면허	자격명	등급	취득일자	발급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보디빌딩)	3급	2010-08-25	문화체육관광부
	SCUBA DIVER 자격증	open water diver	2012-05-14	CMAS KOREA
	정교사 교원자격증	2급	2013-02-22	교육과학기술부
	유도자격증	초단	2013-08-25	대한유도회
	국민생활체육 농구심판 자격증		2013-08-25	국민생활체육전국농구연합회

유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1급 2013-10-13 한국유아체육학회

전산 CAD 제어 능력	구분	Language / 자격구분 / 상품명	능력정도	경험 / 기간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프로그래밍언어			
	PLC			
	SERVO			
	CAD(2D)			
	CAD(3D)			
	기타			

해외여행	국명	체류기간	여행목적	발급처

추천자		부서		관계	
AP시스템을 알게 된 동기					
채용정보를 알게된 방법					

자 기 소 개 서

<p>성장과정 (학교생활)</p>	<p>또래 친구들보다 유독 작았던 유년시절 부모님의 건유로 다녔던 헬스장은 저에게 3가지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대표의 참을성입니다. 보디빌딩이란 운동을 접하게 되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1년 동안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어가며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는 참을성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국가대표라는 명성을 얻고 아시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저에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었고, 이는 학급임원, 동아리대표 등과 같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리더로서의 성공적인 경험들은 저를 더욱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p> <p>세 번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학업과 학과 활동, 대외 활동 그리고 취미 생활까지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선물을 항상 가슴에 품고 무슨 일이든 국가대표 정신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p>
<p>성 격 / 생활신조</p>	<p>제 별명은 '스펀지'입니다. 저와 알고지내는 많은 사람을 제 사람으로 만드는 친화력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활동적이며,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에서 특화된 능력입니다. 때문에 제 주위의 지인들은 그들에게 슬프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저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솔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서로간의 감정의 일부분을 공유하게 되고 감정을 공유한 그들은 저와 10년 지기처럼 가까워지곤 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주변사람들은 제가 필요로 할 때, 본인의 일처럼 나서 줄 수 있는 저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p> <p>또한 사람과 사람사이에 대화가 좋아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능력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다시금 이야기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저를 더욱 신뢰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스펀지 같은 친화력을 가진 저는 타인으로 하여금 강한 신뢰감을 형성하여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 특별한 능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테크데이타에 꼭 가고 싶습니다.</p>

자 기 소 개 서

특기분야	<p>대학시절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력 운동을 담당하여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성격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교육자의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업의 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결국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낀 저로서는 학생들의 수업 이외에 방안을 모색하였고, 학부모상담을 시도하였습니다. 수업 전후로 하여 끊임없는 소통의 시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것이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일상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방학 중에 학교 헬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야구부 학생들을 5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이탈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이 이끌어 나간 것은 간접사회생활경험이었으며 소통하는 기술이라는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p>
지원동기	<p>저는 평생직장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평생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결정의 잣대가 되는 것은 일에 대한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직장에서 일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오래도록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더불어 스스로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 과정을 통하여 파생되는 성취감이 직장생활을 좀 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리라 확신합니다.</p> <p>이러한 이유로 제가 선택한 평생직장의 조건은 '재미있고 즐거운 곳',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대학시절 학과 및 학교의 각종 단체에서 대표를 맡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느꼈으며, 대학원 재학시절 학과조교를 하면서 큰 흐름 속에서도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2년간 학과살림을 꾸려오면서 저의 역량이 어느 곳에서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의 제가 즐거우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테크데이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업무가 진행되며,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진행되는 곳 제가 테크데이터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p>

자 기 소 개 서

'못 하겠다, 모르겠다.'라는 말은 저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운동 선수시절 엄격했던 선배들은 "안 되면 되게 하고, 모르면 알 때 까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불가능은 도전하지 않는 자의 핑계이며, 실패는 노력하지 않는 자의 오늘이라는 생각으로 어떠한 임무라도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는 책임감을 익혀왔습니다. 이 후 대학원 재학시절 담당하였던 학과조교와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의 사무요원으로써 업무들은 대중 앞에 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능력을 더 키워 줬을 뿐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을 겸비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어진 일만 하는 수동적인 직원이 아닌 찾아서 일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테크데이타가 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희망업무



	구분	신입	지원부문	일반사무직			
	[인적사항]						
	성명	한글	김청수	주민등록번호	19861105 - *****		
		영문	Kim Chung Soo	나이	29	성별	남
		한자	金淸洙	E-Mail	ggackzi@naver.com		
거주지 주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02-8 201호						
전화번호	023532512	휴대폰	01073172512	희망연봉/직위	/		

[학력사항]

구분	입학연월	졸업연월	학교명	전공/학과	부전공	구분	졸업구분	소재지	성적/만점
고등학교	2002-03	2005-02	선정 고등학교	인문계		3년제	졸업	울시 은평구 갈현	
대학교	2005-03	2015-08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년제	졸업	주시 흥업면 매가	3.11/4.5
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석사								/	
	세부전공			논문제목					
대학원/박사								/	
	세부전공			논문제목					

[병역사항]

구분	기필	군별	육군	계급	병장	복무기간	2007-10-09 ~ 2009-09-07	면제사유	
----	----	----	----	----	----	------	-------------------------	------	--

[건강사항]

신장	178	체중	68	혈액형	A형	시력	0.4 / 0.6	신체장애	
----	-----	----	----	-----	----	----	-----------	------	--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현직장명	직위	동거
부(父)	김종달	60			○
모(母)	신재숙	55			○

부모생존여부	부(○), 모(○)	종교		결혼기념일	
형제자매		취미		보훈대상여부	

외국어 능력	외국어명	회화	독해	TEST명	종합점수	등급	취득연도

수상 경력	수상내용	수상처	수상연도	비고

자격 / 면허	자격명	등급	취득일자	발급처
	MS office specialist	master	2012-04-01	Microsoft

전산 CAD 제어 능력	구분	Language / 자격구분 / 상품명	능력정도	경험 / 기간
	워드프로세서		최상	
	스프레드시트		최상	
	파워포인트		최상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중	
	프로그래밍언어			
	PLC			
	SERVO			
	CAD(2D)			
	CAD(3D)			
	기타			

해외 여행	국명	체류기간	여행목적	발급처

추천자		부서		관계	
AP시스템을 알게 된 동기	작년에 당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채용정보를 알게된 방법	사람인				

자 기 소 개 서

<p>성장과정 (학교생활)</p>	<p>부모님과 저 포함 세 가족이 꼭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성실하게 일해 오셨고 어머니 역시 가정 주부로 가사 업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두분 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본인들의 몸을 돌보지 않으며 성실하게 지내셨지만 반대로 저는 때로는 성실하게, 때로는 나태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을 가리는 성격에 학교 생활의 처음은 늘 애를 먹었습니다. 처음 사귀는 친구들, 달라진 환경에 어렸을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것이 저에겐 큰 변화였습니다. 다행히 적응에 애를 먹긴 했지만 학년이 지날수록 점차 익숙해져 갔고 고등학교 짝을 해선 먼저 다가가 친구를 사귀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은 또 한번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자취라는 환경에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무엇이든 혼자 해야 한다는 상황에 부딪혔고 자립이라는 부분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원조를 받긴 했지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였고 이 경험은 군대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전과는 또다른 환경으로 체계적인 시간, 근무 환경 속에서 계급과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일과 후에도 이어지는 선후임 관계 속에서 '혼자' 보다는 '함께'라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는 확실히 학교에 돌아갔을 때 팀 프로젝트나 조별 활동 등을 수월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군 생활 중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행정병으로 복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진 그냥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행정병 업무 수행을 통해 각종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작업을 수준급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전역 후에 학교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되돌아 보면 저의 생은 환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저에겐 변화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지만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맞서기 보단 순응하려 드는데 현재 저는 무조건 부딪혀 극복하는 것이 아닌, 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지도 않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p>
<p>성 격 / 생활신조</p>	<p>근본적으로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행동하는데 있어서, 일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를 깔고 살았지만 점차 나이를 먹고 경험을 할수록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과제에 있어서도 혼자 하는 편이 더 편했고 조별 과제를 할때도 적극적인 의견 제시나 다른 사람을 이끌어 가기 보단 '내가 이 의견을 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 의견이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후 앞서 서술한 삶의 환경 변화와 적응을 통해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물론 지금도 남을 리드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 활동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려 하는 '서포터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군대 내에서 분대장 활동, 전역 후 학교에선 선배와 조장의 역할 등을 통해 구성원들을 이끌어 본 경험도 있고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우에 따라선 주도적인 입장에서 구성원들을 이끌어거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감 같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적 성향과도 연결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해 타인과의 약속, 날짜 기한, 제한 시간등은 중요도를 떠나서 무조건 지킵니다. 혹여나 외부적 요인으로 늦춰질 경우는 항상 미리 공지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구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상호간에 이루어진 약속은 모두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업무 상황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항상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 스스로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지시하지 않아도 찾아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도 되도록 시작한 일은 끝까지려고 노력합니다. 간혹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구성원들간의 밸런스를 깨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하에 휴식 시간을 가질때도 일을 하려고 한다면가 하는 등) 드문 경우이고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 조언을 하면 바로 수긍하고 고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p>

자 기 소 개 서

특기분야	<p>어릴적부터 컴퓨터 다루는 것을 좋아했고 직접 조립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 수준에서는 미약한 정도지만 이러한 컴퓨터에 대한 친화력은 향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시 업무 적응도를 높이고,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사무직 업무는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정병 출신으로 군대 내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업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전역 후 사무직 아르바이트 등에서 워드 작업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등은 일반인보다 몇배나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리자가 생각했던 업무 시간보다 지나치게 빨리 끝내버려 일을 기다리거나 스스로 찾았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논리적 영역에도 관심이 많은데, 고등학교 시절까진 수학을 싫어 했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실제 수학을 이론에 접목시켜 구체화 한 경영통계, 계량 경영학, 회계 과목들을 인상 깊게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숫자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응용 되는지를 공부할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p>
지원동기	<p>테크데이타라는 회사는 사실 작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에 블루원과 하만 사업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업무를 연장할 것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아르바이트에서도 자주 그랬고 당장 업무를 보아야 할 숙련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회사가 어느정도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또한 미약하지만 어느정도 회사의 구성과 업무의 흐름 정도를 알고 있고 적응도 되었으며 그때 관리자였던 한 사원이 '이 회사는 현재 커가고 있는 회사이다. 향후 취업전선에 뛰어들 때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저에게 있어서도 큰 모험입니다. 단순히 규모가 큰 회사, 널리 알려진 회사에 지원해 총력을 기울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당사가 향후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저도 이에 합류해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자 기 소 개 서

사실 한가지 일을 오래 한적도 없고(1년 이상)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실무에 투입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특출나다고 보여드릴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서 특기란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스스로 업무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고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회사의 핵심 부서라면 경영전략(기획), 마케팅, 재무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시기 적절하게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낸 부서도 여기에 들어맞고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인상 깊게 들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보면 기획, 재무, 마케팅 순입니다. 물론 회사에 필요한 일이고 저를 해당 부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회사 내의 모든 부서가 제 일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업무

